

# 프로농구 KGC인삼공사 '공공의 적' 되다

### 플레이오프 진출한 6개 구단 감독·선수 모두 우승 후보로 인삼공사 지목 김승기 감독 "오리온을 챔피언결정전서 만나 통합 우승 하고 싶다"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팀의 감독과 선수들은 모두 KGC인삼공사를 플레이오프 우승 후보로 꼽으며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2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2016~2017 KCC 프로농구 플레이오프 미디어데이에서 플레이오프에 오른 6개 구단 감독, 선수들은 자기 자신들의 팀을 제외한 우승팀을 지목했다.

김영만 원주 동부 감독, 추일승 고양 오리온 감독, 이상민 서울 삼성 감독, 유도훈 인천 전자랜드 감독은 모두 KGC인삼공사를 플레이오프 우승 팀으로 지목했다.

선수들의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동부의 허웅과 오리온의 이승현, 삼성의 김태술, 전자랜드의 박찬화는 모두 KGC인삼공사를 우승 후보로 꼽았다.

자신의 팀을 지목할 수 없는 김승기 KGC인삼공사 감독과 오세근은 오리온을 우승 후보로 선택했다.

울산 모비스의 유재학 감독과 양동근도 나란히 오리온이 우승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재학 감독은 "다른 팀들이 모두 KGC인삼공사를 우승 후보로 꼽을 것 같아 오리온이 우승할 것이라고 한 것"이라며 KGC인삼공사의 우승을 점치기도 했다.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에 오른 오세근과 이정현의 활약을 앞세운 KGC인삼공사는 정규리그에서 39승15패를 기록해 창단 첫 우승을 차지했다.

오세근, 이정현에 커퍼 사익스와 데이비드 사이먼까지 버티고 있는 KGC인삼공사는 단기적인 플레이오프에서도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힌다.

KGC인삼공사가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되기는 했지만 다른 팀 선수들이 우승 욕심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

이승현은 "우리 팀을 제외하고 지목하고 해서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한 KGC인삼공사를 선택했다"며 "챔피언결정전에서 KGC인삼공사를 만나면 (오)세근이 형을 꼭 잡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챔피언결정전 MVP에 오른 이승현은 "입대를 생각하니 MVP 욕심이 난다. 2년간 시즌을 못 치르게 되니 MVP에 욕심이 난다"고 말했다.

김영만 감독은 "우리 팀이 KGC인삼공사를 상대할 때 경기력이 좋았다. 우리가 올라가면 힘들 것 같으니까 4강에서 만나고 싶은 상태로 모비스를 꼽은 것 같다"며 "모비스를 이기고 4강에 올라 KGC인삼공사까지 이기겠다"고 다짐했다.

6글자 각오를 밝힐 때에도 우승 욕심이 한껏 드러났다. 지난해 플레이오프에서 정상을 정복한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6-2017 KCC 프로농구 플레이오프 미디어데이에서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6개팀 감독과 선수들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추일승 감독은 "작년처럼 계속"이라고 말했고, 이상민 감독은 "삼성 명가 재건"을 목표로 내걸었다.

유도훈 감독은 "드라마를 쓰자"며 정상에 대한 의욕을 내비쳤다. 전자랜드의 박찬화는 "첫 제물은 삼성"이라며 4강 이상을 비유했다.

"공공의 적"으로 지목된 김승기 KGC인삼공사 감독은 강력한 통합 우승 의지를 내비쳤다.

김승기 감독은 "오리온을 챔피언결정전에서 만나 통합 우승을 하고 싶다. 플레이오프 우승은 2011~2012시즌에 했는데, 정규리그 우승이 없었다. 그걸 했으니 통합 우승까지 해보겠다"고 다짐했다.

6글자 각오를 밝힐 때에도 김승기 감독은 "통합 우승 시작"이라며 열망을 한껏 드러냈다.

김승기 감독은 "최근 정규리그 1위 팀이 플레이오프 우승을 차지한 적이 별로 없다"는 말에 "시즌 미디어데이 때 1위를 한"다고 자필로 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했다. 원래 스타일이 그렇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정규리그 1위 팀 감독 경력을 보면 1, 2년차다. 감독들이 코치 경험도 없었다. 코치로 통합 우승을 경험했으니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하면 통합 우승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규리그 3위 삼성과 6위 전자랜드가 6강 플레이오프에서 맞대결을 펼치고, 4위 모비스와 5위 동부가 맞붙는다.

창단 첫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한 안양 KGC인삼공사와 2위 고양 오리온은 4강 플레이오프에 직행, 상대를 기다린다.

모비스-동부의 6강 플레이오프 승자가 KGC인삼공사와 맞붙고 삼성-전자랜드 중 승자가 오리온을 만난다.

4강 플레이오프에 직행한 김승기 감독과 추일승 감독은 각각 모비스와 전자랜드를 4강에서 만나고 싶은 상대로 꼽았다.

김승기 감독은 "유재학 감독님이 오래하셨으니 유재학 감독을 이기고 올라가고 싶다"고 넌지시 도발했다.

추일승 감독은 "전에도 말했듯 가까워서"라고 답했다.

유도훈 감독이 "그럼 6강 플레이오프에서 삼성을 이길 비책을 알려달라"고 하자 추일승 감독은 "기도하세요"라고 말해 좌중을 웃겼다.

오세근은 4강 플레이오프에서 동부를 만나고 싶으면서 "동부와 모비스 모두 상대 전적이 우리보다 우위에 있었지만, 홈에서 동부랑 할 때 경기력이 더 좋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삼성을 지목한 이승현은 "삼성이라 할 때 경기력이 가장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다. 김준일을 상대로 자신있다"고 각오를

드러냈다.

6강 플레이오프를 치르는 4개 팀이 몇차전까지 치르게 될 지 예상하는 시간도 있었다.

김영만 감독과 유재학 감독은 각각 5차전, 4차전을 예상했고, 이상민 감독과 유도훈 감독은 각각 4차전, 5차전까지 갈 것으로 내다봤다.

유도훈 감독은 "이상민 감독이 5차전까지 가면 기다리고 있는 오리온만 좋은 것 아니냐"고 하는데, 우리는 어렵게 올라온 만큼 4강에 가려면 5차전까지 가야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선수들은 예상을 내놓으면서 신경전을 벌였다.

3차전을 예상한 허웅은 "3차전에서 끝내면 홈에서 끝난다. 빨리 끝내고 쉬고 싶다"며 양동근을 도발했고, 양동근은 "사람 일은 모른다"고 맞받아치면서 4차전 예상을 내놨다.

역시 3차전을 예상한 김태술은 "전자랜드 선수들이 휴가를 준비한다더라. 하루라도 빨리 보내겠다"고 당찬 각오를 드러냈다.

반대로 5차전을 예상한 박찬화는 "휴가 계획은 없다"고 대꾸한 후 "하던대로 하겠다. (김태술 형이) 힘냈으면 좋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민근기자



### 전북현대 박원재·임종은 지역 어린이들에게 시즌권 선물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의 수비수 박원재와 임종은이 지역 내 어린이들에게 시즌권을 선물했다.

27일 박원재와 임종은은 전북도내 사회복지시설 13곳, 180명의 아이들에게 올 시즌 전북현대경기를 마음껏 관람할 수 있는 어린이 시즌권을 전달했다.

선수들은 오후 훈련을 마친 후 전주종합사회복지관과 아동보호시설을 방문해 아이들에게 시즌권을 전달하고 기념촬영과 사인 등을 해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아날 시즌권을 전달한 박원재는 "어린이들이 경기장에 와 마음껏 즐길 수 있게돼 기쁘다"며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도 항상 전북을 응원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임종은은 "좋은 일을 할 수 있어 너무 기쁘다"며 "우리 경기를 자주 보면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현대 선수단은 자신의 연봉 일부를 팬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나눔의 목적으로 시즌권 선물 사회복지단체와 도서벽지 학생들의 휴경기 초청 등 사회공헌활동을 매년 진행하며 팬들에게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 있다.

/김민근기자

### KBO, 올 시즌 비디오 판독·스피드업 강화

올 시즌 KBO 리그가 정교한 비디오 판독과 함께 경기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KBO는 공정하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위해 몇 가지 규정을 손질해 시범경기부터 시행했다.

먼저, 2014년부터 시행된 심판 합의판정 제도가 비디오 판독으로 명칭이 바뀐다.

KBO는 보다 공정한 경기 운영을 위해 외부에 KBO 비디오 판독센터를 설립한다. 기존에 각 구장 심판실에서 실시하던 심판 합의판정을 올해부터 비디오 판독센터에서 한다.

구단으로부터 비디오 판독을 요청받은 경우 비디오 판독센터 영상으로 판정한다. 해당 판정의 심판과 심판장장은 현장 운영요원으로부터 인터컴 장비를 전달받아 착용한 후 판독센터의 결과를 받아 최종 결과를 내린다.

KBO는 각 구장에 비디오 판독 전용 카메라를 3대씩 설치했다. 판독센터에서는 전용 화면과 기존 중계방송 리플레이 화면을 동시에 활용해 정확하고 빠른 판독을 진행할 계획이다.

비디오 판독뿐만 아니라, 스피드업 강화로 경기 시간도 단축된다. 기존 스피드업 규정에서 이닝 중 투수 교체 시간은 2분20초에서 2분10초, 연습부구 시간은 2분10초에서 2분으로 10초씩 단축했다. 또 타자가 볼넷이나 몸에 맞는 공으로 출루할 경우 1루에서 보호대를 벗어 코치에게 전달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타석에서 벗고 출루하도록 변경했다.

올해 KBO 리그는 오는 31일 저녁 7시 잠실 고척, 문학, 대구, 마산에서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6개월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김민근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